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2월 5일 (제118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치고 나가라

“지도자는 무조건 치고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늦장을 부리거나 안일에 빠지면 따라오는 무리는 아예 드러눕고 만다.”

내가 우리 신학원 처장에게 해준 말이다.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길이 딱 막힐 때가 있다. 사고로 인하여 막힐 때도 있지만, 사고도 아닌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앞에 가는 운전자가 조금 느슨하게 운전하기 때문이다. 맞은편 사고가 난 것을 구경하면서 간다든지, 비나 눈이 와서 속도를 조금 늦추면 그 여파는 뒤로 갈수록 커진다. 본인은 조금 늦춰줄 뿐이지만 뒤로 갈수록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지도자란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 자가 조금 늦장을 피우거나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그 여파는 바로 아랫사람에게 가고, 그 파장은 아래로 갈수록 세져서 아예 복지부동의 결과를 낳고, 직무유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가 주일4부 은사집회를 치고 나가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나태해지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이 잡드는 것을 알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내가 밀고 가야 교단 산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지런을 떨고, 모든 일에 매진한다. 지도자도 사람인데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편안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체의 공멸을 낳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를 더욱 몰아세운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다시 세계선교에 발동을 걸고, 교단의 제2의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 주일 오후 3시예배를 은사집회로 하는 것이다.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낫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 게으른 지도자에게서 지휘봉을 빼앗아야 함은 그 지도자로 인해 단체가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지도자 밑에서 인물이 날 수 없고, 무력한 지휘관 아래서 대인(大人)이 날 수 없으며, 어느 단체든 지도자를 뛰어넘을 수 없다. 지도자의 역량이 곧 그 단체의 역량이다.

지휘자에 의해 같은 음악도 달리 해석되는데, 지도자의 역량이 나라와 기업, 교회와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다시 교회가 꿈틀거리고 있다. 다시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기대하게 한다. 주일4부 은사집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 혼신을 다하고 계신다. 목사님이 직접 4부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마치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 온몸을 도는 것처럼, 교회 각 부서에 활력이 넘친다. 무엇보다 성가대는 예배 때마다 좌석을 가득 채우며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배의 각 파트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파트이다. 또한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 목소리로, 악기로 보조하는 역할 역시 예배를 풍요롭게 하고 은혜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파트이다.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께 최상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점검부재가 사고의 원인이다,’ ‘누군가 할 것이다 착각 말고 네가 점검하라, 설마가

다. 이는 단지 목사님과 스태프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예배 현장뿐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위성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자막을 담당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예배 내내 잠시도 한눈팔 틈도 없이 긴장의 연속이다. 어느 교회들처럼 미리 원고로 준비된 설교에 따라 정해진 성경구절을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 중에도 언제 어떤 말씀을 요구하실지 몰라 즉



주일4부 은사집회(2023년 1월 29일, KBS아레나 제2체육관)

일단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를 넘어 정말 죽기 살기로 4부 은사집회에 올인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예배를 돕는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자세와 각오로 준비함이 마땅하다.

예배에는 음향, 찬양, 반주, 자막, 이 네 파트가 특히 중요하다. 안내를 담당하는 파트가 예배 전후를 책임진다면 이 네 파트는 전적으로 예배를 돕는 자들이다. 음식점으로 말하면 아무리 주방장의 음식이 맛있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서빙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목사님의 설교에서 성경구절 및 자료를 띄워주는 자막파트 역시 예배 내내

사람 잡는다고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내신다.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대처해서는 반드시 약한 마귀에게 당한다는 뼈저린 경험을 갖고 계시기에 예배라고 하면 목사님은 모이는 인원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다. 당장 주일4부 은사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은 점심식사도 죽으로 간단히 때우시고 기도에 전무하신다. 지난주 같은 경우 인천교회에서 3부예배를 인도하신 후 바로 서울로 출발하셨다. 마치 전선(戰線)을 오가며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예배 때 목사님이 주문하신 말씀이나 이미지 자료를 띄우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

각 반응해야 하는 발군의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목사님은 3월까지 은사집회를 채운다는 목표로 달려가신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선교단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다. 최전선에서 서서 모든 화력을 동원하며 혼신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따라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 하지 않았나(고전4:2).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자. 합동 작전을 전개하라.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4:10~12)



# 무기를 준 것은 포로된 자를 구출하라는 것이다

“내가 닦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였다.” 이것은 제 고백이자 신앙입니다. 제가 닦고 싶은 분은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계를 150바퀴 이상 돌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고, 앓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고, 불치병을 낫게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닦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입니다(요일3:8). 마귀는 곧 사단이고, 곧 뱀으로(계20:2),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엡2:2), 어두움의 주관자(엡6:12)로 그의 즐개인 불신자의 사후의 영, 귀신을 투입하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2/3를 귀신을 쫓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

## 무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연장 없이 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권세가 주어지는데(요1:12), 그 권세가 무엇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바로 이것입니다.

이 권세로 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저만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닦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닦고 싶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8~20).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가난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분부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바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야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취직도 하고, 세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압

니다. 공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임

을 요 .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이 성령충만이고, 그것이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하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어떤 무기가 투입되느냐에 따라 전세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무기가 필수인데, 최고 성능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핵에 비할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요?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즐개인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마귀와 귀신에게 당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닦고 싶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로 성령충만을 입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마귀와 귀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를 잘 간수하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 안 써도 녹이 습지요. 그 녹은 분명 무기

나 연장에서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녹이 무기도 연장도 다 먹어 치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에 녹이 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녹슬게 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무기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쓰길 원하십니다. 때가 마지막인지라 마귀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목사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찌 그들을 다 상대합니까? 마지막 때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합동작전을

펴야 합니다. 연합작전을 펴서 마귀의 공세를 이겨야 합니다. 총알이 장전된 총은 누가 방아쇠를 당겨

도 총알이 나가 적을 죽입니다. 여자도, 아이도 됩니다. 어디 총뿐입니까? 무시무시한 미사일도 여자가 단추를 눌러도 발사됩니다. 성령충만한 자면 누구나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나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에 귀신이 저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은, 우리가 성령충만을 입은 것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잠24:11)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즉 죄와 가난과 병과 저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쥐고 있는 마귀와 귀신을 내어쫓으면 됩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죽이는 겁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 적을 죽이는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

라 우리 모두가 연합작전을 펴서 이 일을 이뤄야 합니다. 목회 초기에 우리 교역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도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저에게 안수받으러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총을 가지고 알아서 좌적을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못합니다. 무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녹슬어서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어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해도 전도는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을 총으로 빵썰서 무찌르고 부유해지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줘서 건강해지면 믿지 말라고 사정해도 믿습니다. 이것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행10:38).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꿈을 만났을 때 꿈이 총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총을 쏘야 도망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귀신이 놀랄까요? 목사라고요? 장로, 권사라고요? No,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성령충만에서 나오고, 성령충만은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14:2),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요삼1:2). 그러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라

총을 들고 있으면서 꿈을 무서워한다면 말이 됩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어먹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과 병과 저주와 죄에 놀려 산다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여 다시 성령충만을 입읍시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이 혼비백산도 망치고 우리 삶과 가정에, 기업과 교회와 나라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오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신학교 강의에 특별 강사로 간증해주신 염상철 장로님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해주셨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직원들에게 점심식사까지 대접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의 때보다 식사 중에 간증해주신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어 소개하려 합니다.

장로님이 인천교회 성전건축공사의 건축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자신의 사업은 뒷전이고 오직 교회 건축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 이건, 공장이건 구석구석 관리가 되지 않아 너무 더럽고, 물건들도 마구 적치되어 있는 꼴을 보니 '아무리 내가 없다고 이럴 수가 있나' 하며 화가 치솟더라고요. 그러다 2층에 사다리로 걸쳐진 곳을 건너며 살피던 중 그만 사다리가 떨어져 장로님도 사다리와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떨어지며 한쪽 팔로 짚은 곳이 하필 물건을 실어놓은 팔레트였는지라 팔은 부러지고 허리가 나갔는지 끔찍할 수 없더라고요.

이전의 치명적인 교통사고에서도 지켜주셨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즉시 총회장 목사님께 전화하여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즉시 귀신을 쫓고 기도 해주셨답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회사에 오자마자 분을 냈던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몇 시간을 부르짖었습니다. 바닥을 겨우겨우 기어 다니며 부르짖다 보니 온몸이 시커멓게 젖어 그야말로 물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달려온 직원들은 장로님의 물골에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병원에 가시자는 말도 다 뿌리치고 계속 회개하며 얼마를 울부짖었는지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부터 점차 뜨거워지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를 움직여보니 괜찮아서 일어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울먹이며 간증하시는 장로님을 보며, '정말 우리 목사님을 꼭 닮은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감동이 벅차올라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강의 내용보다 지금 식사하며 간증하신 내용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그런 상황이면 백이면 백 119전화부터 때릴 겁니다. 정말 장로님의 믿음과 신앙이 존경스럽습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린아이가 엄마아빠만 찾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위로하시는 하나님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주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다. 새벽을 맞이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특별했다. 그렇게 새벽 시간을 바쁘게 보내던 중에 낮선 이에게 문자가 왔다. 성의 가득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온 문자였다.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열정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 청년은 아마도 중요한 시험 결과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인생을 살다 보니 노력을 했음에도 내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며 본인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본인도 최근에 힘들어서 성경 속 읊을 보며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자는 위로의 말이였다. 그 글에는 또한 나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아는 척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미안함도

전하셨다. 교회의 어른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청년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였다. 혹여나 상처를 더 건드릴까 싶어 조심스럽고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번호를 잘못 누르셔서 나에게 온 이 문자는 추운 겨울 새벽에 깨어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까지 뜨거워지게 했다.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듯 느껴졌다. 몰래 읽어본 듯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상황을 알려드리며,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렸다. 그분 또한 놀라워하시며 고마워하셨다. 체력적으로 새벽기도에 적응하느라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토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힘이 나고, 새삼 정신이 다시 차려졌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모르는 이를 통하여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시다.

이인영 집사



:: 낮은 울타리 ::

# 사명자(使命者)인가, 사명자(私名者)인가?

"험한 산도 나는 팬찰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팬찰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찬양 '사명'의 가사 일부다. 사실 이 노래 가사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사명자의 태도인지 가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다. 총회장 목사님도 사명(使命)의 한자 뜻을 풀어주시며 이렇게 말씀 하셨다. "사명이란 나를 부르시는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사명이 그 이름에 걸맞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主)로 여기지 않았다면 100세 되어 낳은 이삭을 순순히 번제로 바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이끌고 애굽 군대와 바로 왕을 대적하면서까지 출애굽을 할 생각을 할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라니까 험한 산도 팬찰고 바다 끝도 팬찰은 것이다. 누군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

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돌보라고 명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사명은 찾아진다.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사명이다." 사명자는 곧 부르심 내지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기라고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방인들이었고, 총회장 목사님은 전 세계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 입고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어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이어가시는 목사님들께 왜 이곳에서 사역하시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使命者)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나는 과연 사명자인가, 아니면 자기만족과 명예를 위해 적당히 봉사하는 사명자(私名者)인가.

신혁주 전도사

# 주님을 향한 작은 노력

요즘 인기 있는 예능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는 건데요. 연인, 부부, 가족 관계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담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는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옵니다. 사랑은 하는데, 상대방과 잘 맞지 않는 것이 주 문제이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전문 상담사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소한 행동 변화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예배 때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고 저에게 상담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자꾸 잡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예배 중 설교 말씀을 메모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노트와 펜을 가지고 와서 적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는 말이, 처음에는 공책을 가져오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막상 말씀을 적으니 훨씬 집중이 잘되고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저는 최근 회사일이 너무 바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출근시간에 밀린 예능을 보면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찬양을 의식적으로 찾아 들었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시그널이 잘 맞지 않는 데,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는데 그 모습을 방관하며 하나님만 나에게 다가와주길 기다리면 안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것들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사소한 행동 변화를 해봅시다.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찬양을 일부러 더 많이 듣는다거나, 점심시간에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예배 시간에 메모를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그냥 못 본 척 지나치지 맙시다. 그것들은 붙잡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과 더 시그널이 잘 맞을 수 있게 주님을 향한 작은 노력을 실천해봅시다.

장수정

:: 신앙논객 ::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빛이 되리라 ::

# 새해엔 달에 깃발을 꽂아봅시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마음이 부대끼니다. 자신 없고 두려워서 시작이 쉽지 않아요. 그런 저와는 정반대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실행하지요. 전공도 네 가지를 공부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 세무학을 공부했고, 또 영어교육학을 공부했고, 또 졸업 후에 대학원을 다녔죠. 그 사이사이 방송국 PD 시험을 쳤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여러 사기업과 공기업에서 일했지요. 지금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안 해본 운동도 없는데요. 탁구, 요가, 플댄스, 주짓수, 헬스, 수영, 사이클링, 발레, 축구를 했고, 새해에는 야구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도전'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오래전 어느 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그녀가 플댄스를 배우고 있다기에 놀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쩐 그렇게 도전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플댄스? 그건 도전이 아닌데? 그냥 취미인데?"라고요. 오히려 친구 눈에는 제가 도전적인 사

람으로 보인대더라고요. 그 말에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본업인 광고 만드는 일, 그거 하나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오랫동안 도전으로 느껴졌대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광고 만드는 일을 꿈꾸며 교내 광고동아리를 만들었고, 아트디렉터가 되려고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광고 공모전에 열 번 내리 떨어져도 열한 번째 응모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공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다음 달에도 인턴십을 지원했고, 광고를 더 오래 할 생각으로 카피라이터가 되었습니다. 줄곧 한 우물만 팠지요. 하지만 이것을 도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 잊음이 상할 정도로 괴로운 날도, 스트레스로 위가 조여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꼭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매일 밥 먹는 것과 같은 아주 당연한 일상이요. 각자의 불가능은 이토록 달라서 누군가에겐 취미인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반대로 나에게는 일상인 일이 누군가에겐 불가능한 일이 되곤 합니다. 친구에게

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제가 플댄스를 추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도전이 쉬운 사람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장롱 면허를 꺼내 운전하기, 5킬로그램 감량하기, 퇴사 욕구를 누르고 1년 동안 회사를 다니기,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 무엇이든 각자의 불가능한 도전은 위대합니다. 자신만의 익숙한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니까요. 날 암스트롱이 지구 밖을 벗어나 달에 깃발을 꽂은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의 불가능은 무엇인가요. 하고는 싶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좀처럼 실행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새해에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의지력과 정신력, 에너지, 돈을 여기저기 소분하지 않고, 그 한 가지만을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달에 깃발을 꽂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 소망의 언덕 ::

## 꾸준하게 달려봅시다!

일전에 아들과 사우나를 갔다가 경험한 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이제 사우나에 가면 넘어질까, 혹은 다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탕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한참을 혼자 놀다 온 아들과 함께 몸을 누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어르신 한 분이 욕탕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웬일인가? 어르신의 근육질 몸매가 어지간한 영화배우들보다 멋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미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서 누가 봐도 얼굴은 노인인데 안광이 푸르고 건강미가 넘치는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단연 돋보이는 존재는 그 어르신이었다.

그분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직감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조심히 자리를 옮겨 그분 옆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우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멋지셔서요! 어떻게 관리하시길래 이렇게 몸이 건강하세요? 실례지만 연세도 좀 있어 보이시는데요."

"허허허... 이제 철십 좀 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리가요. 특별하지 않으시곤 이렇게 30대 청년만큼이나 멋지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헬스장 들어서 운동하고 사우나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했지요. 인생을 살아보니 꾸준히 했던 것들은 결과를 내더라고요."

"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과 같이 왔는데 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했던 것들이 결과를 내더라고요.'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한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러한 목표설정과 계획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꾸준히 행하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 38년 동안 꾸준히 기도, 목회를 해오셨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나 교회가 깨졌을 때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고독하실 때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를 해오셨다. 심지어 '하루에 최소 4시간 기도한다.'라고 까지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초지일관된 기도생활을 말씀하신다. 그 꾸준한 기도가 오늘날 목사님을 세계적인 영적 거장으로 만들었으며, 지금도 40대의 기력으로 청년보다 더 청년 같은 모습으로 빛어주었다.

이시대 목사님은 JCA(아카데미)를 통해 무려 10여 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완강하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시절 조장·구역장 교육 때부터 계산하자면 성경 전체를 세 차례에 걸쳐 20년이 넘는 세월을 성경을 연구하시고 가르쳐 오셨다. 그렇게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니 늘 새롭게 솟구쳐 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명설교를 하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는 것은 비단 목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소망과 목표, 한발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정책사항까지 적용된다. 당장 지난 월드컵만 보더라도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빌드업' 축구를 추구했더니 결국 원정 16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온 국민이 감격 가운데 목도하지 않았는가!

꾸준한 기도, 꾸준한 연구, 꾸준한 독서, 꾸준한 복습, 꾸준한 QT, 꾸준한 저축, 꾸준히 하는 모든 것이 결국 결과를 낸다.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가치 있는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꾸준히 해서 열매를 맺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내년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분명 우리 삶에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큰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이현승 목사

## 답이 여기 있었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린다. 때론 사업이 어렵고, 때론 몸이 불편하고, 때론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영육 간에 많은 문제를 겪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애쓴다.

그런데 나뭇의 답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그것은 그 해결책이 근본적인 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요한3서의 말씀과 같이 먼저 중요한 것이 영적인 바로 섬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큼 어려운 것 또한 이것인지라 이걸 방지하고 차선책을 찾다 보니 점점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경우였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바로 서니 육적이고 혼적인 문제들이 바로 잡힌 것이었다.

혹시 사업이 어려운가? 걱정, 고민이 많은가?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가?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가? 감사가 어려운가?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가?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잡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는지 점검하자.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자.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일과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큰 인과 관계가 있으나 우리 눈이 가리워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모든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책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8).

장명훈 집사

